

## 전문의가 들려주는 위암 이야기

우리는 위암에 대해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다. 위암을 진단받은 유명인도 적지 않게 봤으며, 위암에 좋은 것과 나쁜 것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야기 속에는 잘못된 속설과 오해가 존재하며, 위암의 심각성을 알지만 이를 예방하는 일에도 여전히 소홀하다. 이제 위암을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최서희 교수에게 올바른 정보를 들어본다.

## ■ 위암, 위궤양이 오래되면 위암이 되나요?

-위암부터 살펴보면 모든 위암이 위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위염은 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간단한 치료로 완치되거나 저절로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축성 위염 중 일부가 장상피화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위에 염증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점막이 파괴되고 그 자리가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과 유사한 세포들로 바뀌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궤양은 위점막이 훨씬 점막보다 깊게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위궤양의 경우 양성 위궤양은 위암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

성 위궤양은 극히 일부에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암이었는데 위내시경에서는 위궤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암이 궤양을 등반한 경우이므로 조직검사로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병원을 찾아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실시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모두 위암에 걸리나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됐다고 모두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헬리코박터는 위에 염증을 일으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의 단계로 전암병변으로 진행돼 유전자 변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2~3배 높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헬리코박터를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6세 이상 인구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60%에 달하는데, 이 중 20%에서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위장관 질환이 나타나고, 1% 미만에서 위암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암 예방 차원에서 헬리코박터에 대한 제균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 ■ 20~30대에 위암에 걸리면 결과가 더 나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30대에 젊은 층의 위암환자가 나이 든 환자에 비해 특별히 예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위암의 예후는 최종적으로 확인된 병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의 나이와는 상관없다고 하며, 같은 위암 1기라면 젊은 층이나 나이가 많은 층이나 완치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젊은 환자에서 암세포 형태가 좋지 않거나 위 전체를 침범하는 4형 위암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도 위암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 ■ 조기 위암이라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내시경 상에서 암이 점막과 점막하층, 즉 암은 층에서 보일 경우

조기위암이라고 정의하며, 조기위암의 표준 치료에는 암이 있는 부위만 절제하는 내시경적 치료와 위와 위 주위의 립프절을 같이 절제하는

##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이 중 내시경 절제술은 위암의 립프절 전이 가능성에 거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내시경 절제술 후 불완전하게 절제됐다고 판정되면 추가로 위 절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위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까요?

-위암 수술은 15cm 내외로 배를 가르는 개복수술, 1.5cm 내외의 구멍을 4~5개 뚫는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강경수술은 수술 상처의 크기도 작고 수술 후 통증도 적으며 상처 감염 등의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고 수술 후 회복이 빠릅니다. 로봇수술은 3차원적 시야와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수술기구, 렘프 보정과 같은 기능들이 더해져 좀 더 안정적인 수술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변이 크고 립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 개복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합병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담당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수술할 경우 위는 어느 정도 절제하나요?

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 진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 ■ 위암은 재발률도 높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위암 재발률은 병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보통 1기 위암의 재발률은 5% 이내, 2기는 20~30%, 3기는 40~60% 정도로 이릅니다. 대부분의 재발 및 전이는 위암 근처 수술 후 3년 이내에 주로 관찰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사주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담당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데, 보통 첫 3년간은 3~6개월마다, 3~5년간은 6개월~1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1기와 4기의 생존율 차이가 크고 늦게 발견할수록 재발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위암 환자의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시행하고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소견이 있는 위암 고위험군의 경우 매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서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발췌)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

## 우리의 안전지킴이 비상소화장치함

화재 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고 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소화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주택지역 및 화재경계구역 등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은 일반수관, 관창, 화재진압을 위한 물품 등이 비치되어 있다.

이 중요하고 유용한 비상소화장치함을 119안전센터에서는 인근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

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비상소화장치함 사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비상소화장치함을 열어 소방호스를 꺼낸다. 2.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한다.(호스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3. 개폐장치를 활용해서 소화전을 개방한다. 4.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소방호스를 가져가서 화재에 물을 방수한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상소화장치는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점검을 하다보면 개폐장치 등 필요 장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비상소화장치함 앞에 주차를 하거나 짐을 적재해 놓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비상소화장치는 누군가의

생명을 잇아가고, 나의 무관심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조경빈(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 캠핑장 화재 주의하자

몇 년 동안 등 코로나19로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상황속에서 캠핑, 차박 등 야외활동 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캠핑장 예약 사이트를 보면 주말은 몇 개월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장박, 차박 등 캠핑 관련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 많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는 캠핑 관련 예능도 방영이 되고 있으니 캠핑의 인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캠핑 시 장작, 숯 등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캠핑이 늘고 있는 만큼 캠핑카, 텐트 등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캠핑장 안전수칙을 한 번 알아보자.

▷ 텐트 내부에서 난로 등 난방·온열 기기를 취침 시 사용하지 않기.

▷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는 규격에 맞는 불판을 사용할 것.

▷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 캠핑장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할 경우 저전력 제품을 사용할 것.

▷ 텐트 고정 할 때는 눈의 잘 피는 야광으로 된 줄 등으로 고정할 것.

지금까지 캠핑장 안전수칙을 알아봤다. 캠핑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끝났을 때다. 안전수칙을 및 이용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캠핑을 즐기도록 해보자.

/이승환(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기사제보, 독자투고 흰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재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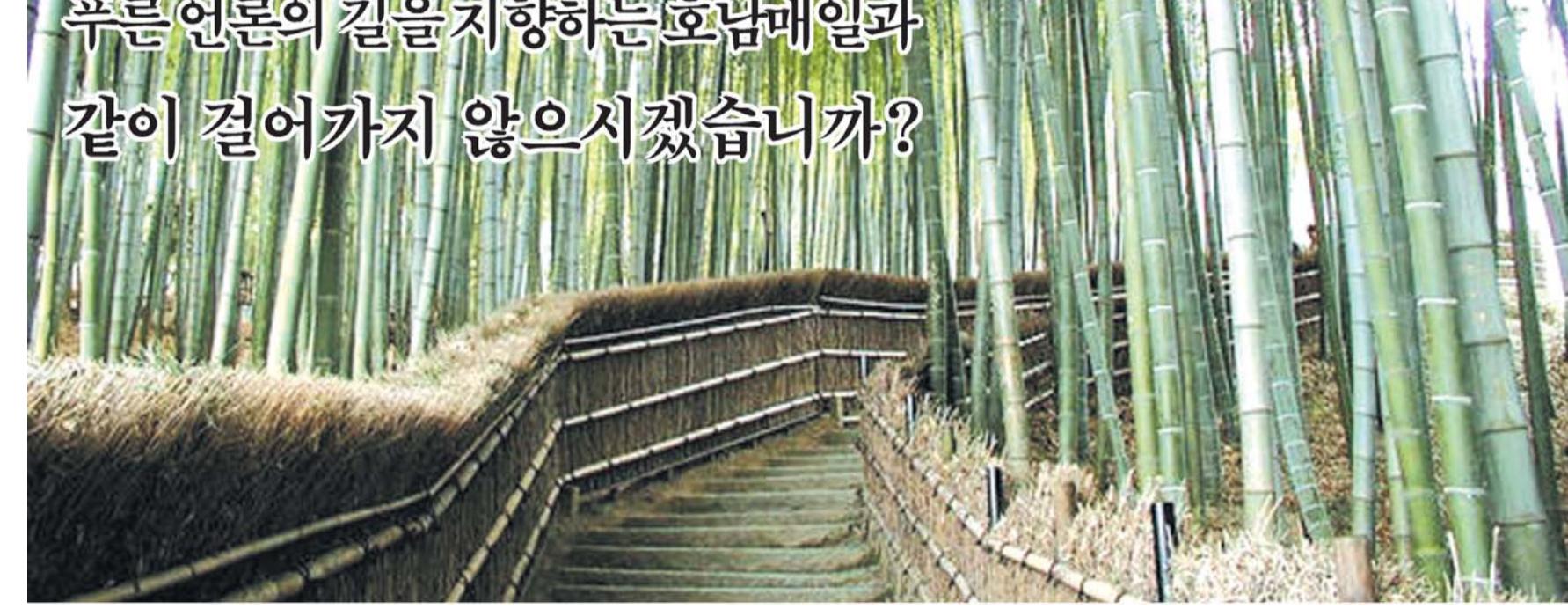
인쇄처남도프린트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연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새희망 새언론 새천년



## 지국안내

상무……381-5310  
서부……651-0004  
충장……223-4123  
무등……224-4188  
동부……234-4235  
학동……225-0651  
광천……374-2120  
화정……374-3713  
금호……376-7153  
생촌……371-9584  
송암……362-4102  
농성……362-4102  
진월……671-7276  
봉선……675-5530  
중앙……521-5640  
중홍……433-1503  
양산……574-3745  
운암……521-4270

오치……261-9461  
문홍……261-9462  
일곡……573-3200  
동운……525-8994  
두암……266-1920  
첨단……971-1920  
신장……955-0451  
월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 지사안내

목포……010-8718-1234  
순천……010-9656-1383  
광양……010-9656-1383  
나주……010-3644-1309  
담양……010-3602-3550  
곡성……010-3647-6161  
구례……010-8597-0053  
화순……010-2430-5055  
영광……010-9860-5489  
완도……010-5066-4708  
장흥……010-5665-8354  
신안……010-4217-9480  
강진……010-3775-2369  
강성……010-3610-7824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